

광주 대중교통 이용, 버스 줄고 지하철 늘어

〈연평균 3%〉

〈연평균 5%〉

시내버스 적자 매년 눈덩이
市 지원금 10년만에 2.5배
대중교통간 환승 방안 시급

이후 10년 만에 누적 지원금이 3656억원
을 초과했다. 2007년 재정지원금은 196억원
이었으나 지난 2016년에는 508억원으로
증가했다.

이는 운송원가 상승과 운송수입 감소 탓
이다. 운송원가의 84%를 차지하는 인건비
와 연료비는 해마다 증가하고, 최저임금인
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운전원을 충원
해야 하는 등 인건비 부담은 해마다 커지
고 있다.

또 자가용 증가와 학생 주5일 수업 등
으로 시내버스 이용객은 해마다 줄고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광주 시내버스 이용
객은 지난 2013년 1억5200만명에서
2017년 1억3400만명으로 연평균

3.01% 감소했다. 1일 이용객도 2013년
37만명에서 2017년 34만명으로 줄었다.
반면 도시철도 이용객은 지난 2013년
2800만명에서 2017년 5100만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연평균 증가율도

5.7%에 달했다.

2017년 기준 승용차 이용이 40.9%로
가장 높고 버스 33.5%, 택시 13.9%, 지하
철 3.6% 순이었다. 광주 자동차 등록 대수
는 2017년 기준 64만9293대로 연평균
3.4% 증가했다. 차종별로는 승용차가 전
체의 82.29%를 차지, 연평균 4.2%의 높
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처럼 시내버스 이용객이 줄어든 반
면, 운송원가 상승으로 시내버스의 적자가
누적되고 이를 보전해줘야 하는 광주시의
지원금도 계속 늘고 있다.

이에 시내버스 서비스 경쟁체제를 강화
하고, 운송원가 절감 분야별 인센티브 제
공하며, 버스노선 입찰제를 도입하는 등의
대안이 제시됐다.

또 보고서는 대중교통 이용을 높이기 위
해 대중교통 간 연계 환승 방안을 마련하
고 편리한 이용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
안했다. 도시철도는 2호선 개통으로 분담

률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 다른 교통수
단과의 연계 환승 계획이 수립돼야 한다고
지적됐다.

특히 도시철도 2호선 개통에 따라 지하
철 역과 연계해 환승거점을 조성하고 이용
객이 적은 노선에 소형버스 도입해 운영
예산을 절감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소형버스의 경우 시내버스 운송 원가의
30%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
됐다.

광주시는 보고서를 바탕으로 2021년까
지 대중교통 활성화·효율화·안정성 향상을
위한 정책과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대중교통 이용률이 높
아지면 승용차의 통행을 줄여 교통혼잡,
정체 구간 감소, 대기오염 감소 등 환경 개
선을 기대할 수 있다"며 "대중교통 활성화
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친환경 교
통체계 구축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시 국악상설공연 첫 무대 전 좌석 매진

가족 관객·외국인 등 몰려
부채춤·판소리 창극 등 즐겨

곳과 북춤·바우놀이 순으로 이어졌다.
이날 공연에는 주로 가족 단위, 외국인
등이 찾았다. 3월 9일 우리지역 국악단
체 '창작국악단 도드리', 16일 시립창
극단, 23일 시립국악관현악단, 30일
'굿패 마루' 등의 공연이 예약돼 있다.

민선 7기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국
악상설공연이 2일 첫 선을 보여 전 좌
석을 채웠다. 상무지구 광주공연마루
에서 열린 이번 공연에는 시작 1시간
전부터 관객들이 몰려 일찌감치 182석
전 좌석이 차 일부 시민은 계단 등에서
서서 보기도 했다.

〈사진〉

이날 공연은 광주시립창극단이 준비
한 '부채춤'을 시작으로 단막창극 심청
가 중 '심봉사 황성 가는 길'을 불렀으
며, 가야금 병창, 아쟁과 대금 병주, 판

박향 시 문화관광체육실장은 "매회
공연 이후 관객들의 의견을 모니터링
해 공연내용과 환경을 보완해 광주를
대표하는 명품 국악공연으로 발전시키
겠다"고 말했다.

광주국악상설공연은 매주 토요일 오후
5시에 시작하며, 전석 무료로 선착
순 입장이 가능하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문화전당 봄맞이 방역 낮 기온이 15도를 웃도는 봄 날씨를 보인 3일 광주시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직원들이 동백꽃이 활짝 핀 어린이놀이마당에서 병해충 방지를 위한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최해배 기자 choi@kwangju.co.kr

전남도 해양수산기업 창업·육성 2차연도 지원사업 시작

2020년까지 3년간 51억 투입

전남도는 창업부터 육성까지 맞춤형으
로 지원하는 해양수산창업투자지원센터 2
차 연도 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우수 수산기술을 보유한 도내
예비창업자와 유망기업을 발굴해 창업·제
품 개발·기술교육·마케팅 등을 지원하게
된다. 예비창업자들과 유망기업이 지역경
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하
고 해양수산산업을 미래전략산업으로 육

성하기 위한 것이다.

사업은 2020년까지 3년간 추진된다. 국
비 25억 5000만원 등 총 사업비 51억원이
투입되며, 매년 17억원씩 투입된다. 주관
기관은 (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 해양바이
오연구센터이고 (재)목포수산물식품지원센
터와 (주)더오션이 참여해 산·관·연이 협
력한다.

사업 1차연도인 지난해에는 도내 17개
시·군, 46개 수해기업에 96건의 사업을 지
원했다. 149명의 고용 창출과 279억 원 매

출 증대, 758만 달러의 수출 신장 성과를
일궜다. 또한, 9건의 신규 창업(청년창업
5건)도 달성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사업 2차연도인 올해는 지난해 성과를
바탕으로 사업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1단계 창업, 2단계 소재 개발 제
품 기획, 3단계 제품 개발, 4단계 브랜드
개발, 5단계 판매 수출 및 역량 강화 등 사
업 프로세스를 강화한다. 1차연도 성장
단계를 지나 사업 활성화 단계에서 실질
적인 기업 성장을 이루도록 지원할 계획

이다. 이달 중으로 모집 공고를 내고 4월
계 희망 기업 현장 실태조사를 거쳐 평가
위원회에서 최종 수혜기업을 선정한다.
수혜 기업과 예비창업자에게는 맞춤형
업무 일괄지원(One-Stop service)을
제공한다.

양근석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전방위적
기업 지원으로 해양수산산업 양적·질적 성
장을 이루겠다"며 "지역별 브랜드 상품을 육
성하고 실용화하는 데도 노력하겠다"고 말
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전남지역 지난해 소비자 상담 '침대' 가장 많아

지난해 전남지역 소비자 상담은 논란
이 됐던 라돈 침대와 관련된 문의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3일 전남도와 한국소비자원 광주지원
의 '2018년 전남 소비자 상담 맞춤형 정
보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1372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도내 소비자 상담은
총 1만4685건이다.

이 가운데 소비자상담 품목별로는 침대
가 53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이동전
화서비스 421건, 스마트폰 324건, 택배화
물운송서비스 270건 등의 순이었다.

침대 매트리스에서 라돈이 검출이 돼
사회문제가 되면서 과거에 비해 '침대'
품목 상담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분석된

다. 또한, 섬 등 도서지역이 많은 지역 특
성상 '택배화물운송서비스' 품목도 상위
권에 포함됐다. 상담 사유별로는 '계약'
관련 문의가 가장 많았고, 침대와 스마트
폰 품목은 품질·AS에 문의가 집중됐다.
지역별로는 순천이 2281건으로 가장 많
았고, ▲목포 2041건 ▲여수 2032건 ▲
광양 1015건 ▲나주 916건 순이다.

전남도와 한국소비자원 광주지원
상담분석자료를 각종 소비자피해 예방
활동에 활용할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
는 "연령별 맞춤형 교육, 홍보 강화, 피해
구제 등을 통해 도내 소비자 권의 보호에
앞장하겠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광주시 어린이 통학 경유차량 6일~12일 보조금 접수

광주시는 LPG 신차로 교체를 희망하
는 노후 어린이 통학 경유차량을 6일부터
12일까지 접수한다.

광주시는 '2019년 노후 경유어린이통
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을 통해
노후 어린이 통학 경유차량을 LPG 신차
로 교체 시 차량 구매비의 일부를 지원하
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한다.

올해는 1대당 500만원 씩 총 5억
7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114대를 지
원한다.

지원 대상은 어린이집 등 어린이통학
차량으로 사용되는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15인승 이하의 소형경유
차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선로 걱정없는
엘림형 태양발전소

선착순 분양

'최소 25년 이상'
마르지않게 정성들인 노후 연금식
엘림형 태양광발전소

태양광 100Kw	동식물재배사 위탁, 영농(임대)
년 4,000만원 이상 수익가능	

N+B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한국전기공사협회

자기자본 투자금 대비
년 40% 수익 기대

2019년 8월~10월 준공예정

현금 투자금 회수기간
▶ 최단 2년 6개월 가능

계약금 1천만원
선착순 50개소 접수 중

상담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선로 걱정 마시고 전화주세요!